

비호생활관 RC교육프로그램 NEWSLETTER

어서와! 울산은 처음이지?! & BihoRC 프로그램 평가회 및 시상식

대구대학교 비호생활관 사생들의 국제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설된 어서와! 아메리카는 처음이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토요일 (11.30) RC Master 선생님과 두 명의 RA 그리고 28명의 학생들이 한국의 공업도시 울산 현지를 견학하고 돌아왔다. 이른 아침 샌드위치를 비롯해 간단한 간식과 함께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울산으로 출발한 학생들은 첫 번째 일정으로 대왕암공원에 도착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앞으로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했지만 학생들을 환영하듯 비가 거짓말처럼 멎었고 이내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대왕암을 마주한 학생들은 시험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즐겁게 스트레스를 날리며 서로 카메라 셔터를 눌러주며 기념 촬영을 하느라 바빴다. 그 중 한 외국인 친구는 자신의 나라에는 바다가 없어 바다만큼 큰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다. 그 만큼 실제 바다를 보며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었다.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었던 것은 바로 일산지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먹은 한정식이었다. 강된장 보리 비빔밥을 메인 요리로 각종 밑반찬 그리고 고등어구이와 해물파전은 한국인, 유학생 말할 것 없이 너도나도 젓가락이 오가기 바빴다. 한국인 친구들은 기숙사에 있으면서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기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건강하게 밥 먹은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유학생들 또한 전통 한정식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라 색달랐고 대접 받는 기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점심 식사 장소와 가까운 곳 '장생포'라고 불리는 곳에 도착한 우리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고래박물관 관람을 하거나 모노레일을 타고 장생포문화체험마을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장생포문화체험마을은 70~80년대의 한국 마을의 모습을 재연해놓은 곳이다. 사생들은 유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부모님이 생활하던 시대의 모습이라 알려주고 그 시대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설명해 주었다.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누구 할 것 없이 그 시절 교복을 빌려 여기저기 포토존을 찾기 바빴다. 마지막 일정은 태화강 근처의 십리대밭 이었다. 우리는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큰 대나무밭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다. RC master 선생님께서서는 예전에는 이 대나무들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대나무를 많이 베었다고 했다. 최근에 들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울산시에서 환경보호에 많이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진 우리는 부쩍 가까워져서 곧 헤어질 것을 알고 있는 듯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쉴 새 없이 떠들어 댔다. 학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였다. 예정보다 1시간 늦어졌지만 그만큼 많이 즐겼다고 생각한다. 정문에서 치킨을 함께 먹고 학생들은 헤어졌다.

Date



지난 12월 2일 향토생활관 강당에서 BihoRC 프로그램 평가회 및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대구대학교 김상호 총장님, 비호생활관 김영한 관장님을 비롯하여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지난 RC 프로그램의 성과를 함께 되돌아보고 다른 프로그램 수강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총장님과 관장님의 격려하는 격려사가 있었고 사생들과 총장님은 이 시간을 활용하여 QnA를 진행하여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생들의 불만을 우선으로 듣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다. 이어서 우수 수료 학생들을 시상하는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시상은 출석률, 과제 평가, 학생평가의 점수를 바탕으로 대상 1명, 우수상 6명, 가작 12명으로 총 19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이어 RC Master 윤주연 선생님의 20년도 RC 프로그램의 방향과 새롭게 개설 될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이 끝나고 밖에 준비된 다과와 음료를 마시면서 전시된 작품들과 사진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2학기 RC 프로그램 사생 인터뷰 중 한 학생은

“듣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많이있었지만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 아쉬웠다.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작품들을 보면서 다음 학기에는 꼭 저 수업을 수강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다음 학기를 미리 준비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평가회 및 시상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생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난타 수강생들의 식전 축하 공연부터 K-POP 댄스 수강생들의 댄스공연 거기에 더하여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사회 학생들 또한 스피치 수업인 “내가 제일 잘 나가”의 수강생들이었다. 학생들은 주 1회 5주 프로그램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느 프로 공연팀, 사회자보다도 빛을 발하며 사생들이 RC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는 관심과 열정을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기숙사를 생각하는 행정과 거주하는 사생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RC 운영진들은 사생들이 원활하게 프로그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19년도 BihoRC 프로그램에 참여해준 사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년도 BihoRC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Signature